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연준 신임 의장, 잭슨홀서 첫 연설… 소통 시험대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유가 하락세에 미 국채 장단기 금리 하락
- Bloomberg: 유가 하락에 미 증시 상승… 엔비디아 실적 주시
- CNNBusines: 미 젊은 층, 신용도 놀라운 회복세
- WSJ: 월스트릿, “코스피, AI열풍과 고위험 ETF 폭주로 널뛰기”
- WSJ: 트럼프 정부 금리 인하 압박에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시진핑,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대응 경고

[오일]
- CNBC: 유가 3% 하락…미국, 대 이란 경제 제재로 바뀌면서

[트럼프 행정부]
- Politico: 미, H-1B 비자 수수료 $103,265로 대폭 인상 추진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CNBC: 미 구직자들, AI 경력 슬쩍 덧붙인다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Jackson Hole Offers Warsh High Profile Slot to Rebut His Critics
연준 신임 의장, 잭슨홀서 첫 연설… 소통 시험대

-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취임 후 첫 주요 연설을 한다. 이번주 금요일 연설한다.
- 지난달 매끄럽지 못했던 기자회견으로 채권 시장의 반발과 투명성 강화 요구받은 그가, 이번에 자신의 간결해진 소통 방식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.
- 워시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통화정책 제시(포워드 가이던스) 축소와 투명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fall as traders await more economic data
미 유가 하락세 가운데 미 국채 장단기 금리 하락

-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화요일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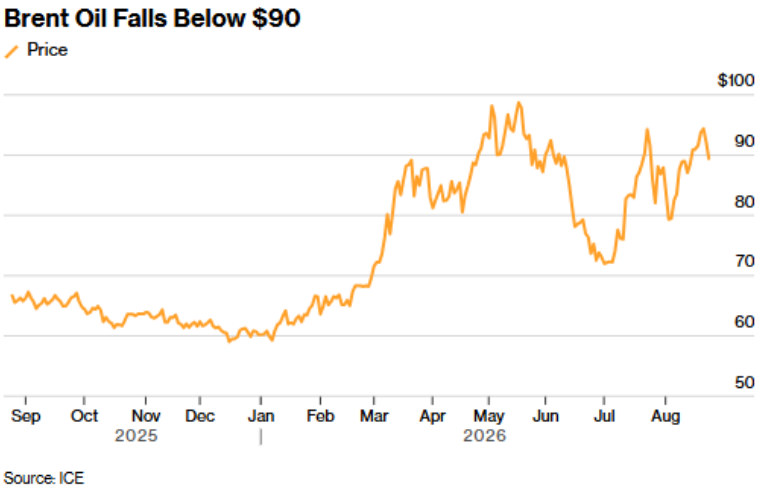
- 주택담보대출, 자동차 대출, 신용카드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4베이시스 포인티 이상 떨어진 4.66%를 기록했다.
- 장기물인 30년물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한 5.192%, 미 연준의 단기 금리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내린 4.208%에 거래됐다.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647%	-0.057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698%	-0.003
US1Y	U.S. 1 Year Treasury	4.007%	-0.019
US2Y	U.S. 2 Year Treasury	4.197%	-0.039
US30Y	U.S. 30 Year Treasury	5.178%	-0.053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798%	-0.005
US6M	U.S. 6 Month Treasury	3.918%	-0.005

기사

Bloomberg: Stocks Climb as Brent Below $90 Gives Bonds a Lift
유가 하락에 주가 상승… 엔비디아 실적 주시

-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채 금리가 낮아지며 증시가 상승했다. 시장은 AI 업황 흐름을 확인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.
- S&P 500 지수는 8월 상승세를 이어갔다. 오늘 화요일 S&P 500은 0.2%, 나스닥은 0.5% 가까이 상승중이다.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전 7일간의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으며, 반도체 지수는 1.5% 올랐다.
- 미 외교관리들의 중동 복귀 소식도 전쟁 확전 우려를 줄였다.
- 미국과 이란의 중재국 노력 등으로 브렌트유는 $90 미만으로 떨어졌다.

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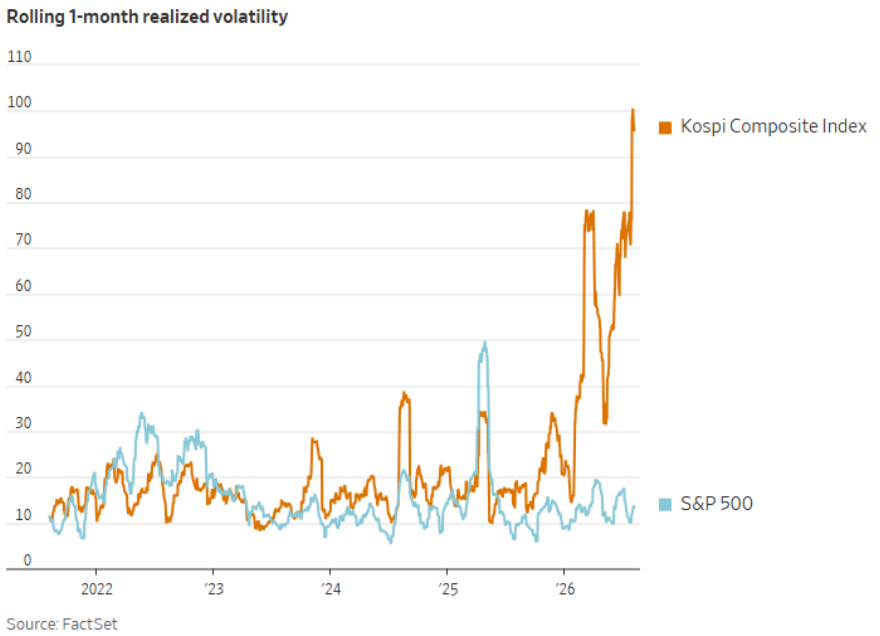
CNNBusiness: Young Americans have higher credit scores today than before Covid
미 젊은 층, 신용도 놀라운 회복세

- 고물가와 고용 한파 속에서도 미국 젊은 세대의 재정 상태는 예상외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.
- 미 신용사 FICO에 따르면, 18~29세 미국인의 평균 신용 점수는 코로나19 직전보다 17점 상승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회복됐다. 이는 소득을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은퇴 자금 적립에 집중하며 재정 상황을 개선한 결과다.
- 30~44세 밀레니얼 세대 역시 적극적인 부채 관리에 힘입어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.

기사

WSJ: The World's Craziest Stock Market Has Turned Into a Fright Ride
월스트릿, "코스피, AI열풍과 고위험 ETF 폭주로 널뛰기"

-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한 AI 붐으로 코스피는 2025년 76% 상승하며 글로벌 수익률 1위, 시총 세계 5위로 도약했다. 신용융자 잔고는 6개월 만에 79억 달러 늘어난 271억 달러를 기록했다.
-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투기성 자금이 쏠리며 코스피는 9,000선을 넘어섰으나, AI 수요 의구심에 6주 만에 40% 폭락하며 시총 2.5조 달러가 사라졌다. 이후 저점 대비 20% 반등했다.
- 개미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3.3%로 하락하자 당국은 신규 상품 승인을 중단하고 증거금을 약 2만1천달러로 올렸다. 이에 변동성 지수는 86.18에서 56.76으로 떨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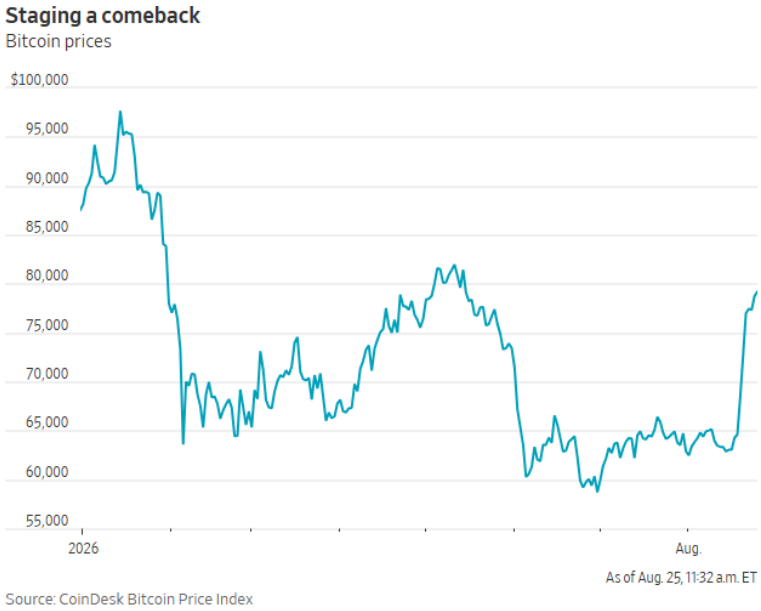


기사

WSJ: Bitcoin Rides 'Debasement Trade' Wave
트럼프 정부 금리 인하 압박에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

-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금리 인하 노력으로 '달러 가치 하락(debasement)'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, 비트코인이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를 일시 돌파했다.
-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은 20%를 넘었다. 오늘 화요에는 7만 9천 불 바로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.

- 인플레이션과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비트코인 수요를 견인하고 있지만,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을 이유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Xi Signals Defiance as US Threatens Sanctions for Iran Support
시진핑,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대응 경고

- 중국 정부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반발 메시지를 발표했다.
-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자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"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"이라고 밝혔다.
- 중국은 미국에 맞설 경제적 카드를 쥐고 있어 트럼프의 더 강한 제재를 견제할 수 있는 데다, 확실한 대가가 없는 한 이란과의 관계를 끊을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것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drops 3% as U.S. shifts to economic pressure on Iran, easing fears of renewed war
유가 3% 하락…미국, 대 이란 경제 제재로 바뀌면서

- 미국이 이란 대응 방식을 군사 타격에서 경제 압박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동 내 전면전 재발 우려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3% 급락했다.
-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제재 중심으로의 전환이 당분간 전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. 이에 이란 경제부 장관은 추가 제재에 완벽히 대비되어 있다고 응수했다.
- 한편 미 국무부는 대피시켰던 중동 주재 외교관들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현지로 복귀시킬 수순을 밟고 있다.

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Politico: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more than $100K fee for H-1B visas
미, H-1B 비자 수수료 $103,265로 대폭 인상 추진

-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용 H-1B 비자 수수료를 한 개당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한다.
- 지난해 9월 $100,000 부과안 발표 후 6월 연방법원의 집행 정지로 차질을 빚었던 정책을 재개한 것이다.
- 노동조합과 대학 등은 의료·IT 산업 타격을 이유로 반발했으나, 국토안보부는 수수료를 $103,265로 최종 책정하고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To cram more AI skills onto LinkedIn profiles, more job seekers are turning to ‘time travel,’ say researchers
researchers.html
미 구직자들, AI 경력 슬쩍 덧붙인다

- 구직자들이 몇 년 전에 그만둔 예전 직장 경력에 슬그머니 인공지능(AI) 기술을 추가하는 편법을 해하고 있다.
- 최근 연구에 따르면, 2022년 챗GPT가 나온 뒤 링티드인 프로필의 옛날 일터 이력에 'LLM', 'GPT' 같은 AI 단어를 몰래 덧붙이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.
- 기업들이 AI를 쓸 줄 아는 사람만 찾기 때문이다. 요즘 회사 10곳 중 7곳 이상이 AI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관련 공고도 3배 넘게 늘어났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3,459.70	+42.7	+0.08%
US 500	7,669.90	+16.9	+0.22%
Dow Jones	53,452.67	+35.51	+0.07%
S&P 500	7,669.75	+16.79	+0.22%
Nasdaq	26,121.02	+140.82	+0.54%
S&P 500 VIX	15.60	-0.25	-1.58%
Dollar Index	98.875	-0.054	-0.05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30/32	5.172	-0.056
10-Year Note	4.625	5/32	4.643	-0.058
7-Year Note	4.375	4/32	4.479	-0.060
5-Year Note	4.375	24/32	4.352	-0.057
3-Year Note	4.25	1/32	4.258	-0.050
2-Year Note	4.25	1/32	4.202	-0.030
1-Year Bill	0	0/32	4.002	-0.016
6-Month Bill	0	0/32	3.923	0.013
3-Month Bill	0	0/32	3.798	-0.002
1-Month Bill	0	0/32	3.701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